

정신건강에 대한 교사와 일반인의 태도 조사연구

俞 淑 子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 이 은 옥 조교수)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문제
3. 연구의 한계

II. 연구방법

1. 대 상
2. 도 구
3. 절차 및 방법

III. 조사성적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2. 제 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 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사회가 복잡해짐과 비례하여 정신적인 긴장도가 높아져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손상을 받게 되므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정신건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실제로 최근에 정신신경장애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신신경증 환자의 수적인 증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도 그 원인이 있는것 같다.

Bentz¹⁾의 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가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기어서 그는 국가의 정신건강의 수준과 국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원인중 하나가 정규 교육제도라 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통한 정서적 생활과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일반인의 정신건강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교사들의 올바른 정신건강의 지식과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문제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교사들과 일반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 1) 정신증 환자에 대한 태도
- 2) 신경증 환자에 대한 태도
- 3) 정신건강에 관한 태도
- 4) 정신질환에 관한 태도
- 5) 정신과 의사에 관한 태도
- 6) 정신병원에 관한 태도

1) W. Kenneth Bentz and others; Attitudes of Teachers and the public Toward mental illness. Men. Hyg. 55:(3)324, July, 1971.

3. 연구의 한계

1) 본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완전한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속 단위별 특성이 제거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결과 이므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에 일반화 하기 어렵다.

3) 용어의 정의를 미리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아 용어의 의미를 혼돈했을 가능성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대 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광주 시내에 있는 공립 중 고등학교 11개교의 남, 여교사 140명과 만 20세 이상의 일반인 180명으로 총 3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방법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중 조사에 응한 교사는 114명, 일반인은 149명 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응답자는 교사가 111명 (79.2%), 일반인은 130명 (72.2%)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면, 교사의 연령은 만 23~55세까지였으며 30대가 51.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만 20~63세까지였으며 20대가 49.2%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교사중 남자가 61.3%, 여자가 38.7%이었으며 일반인은 남자가 53.0%, 여자가 46.9%로 두 그룹 다 남자가 많았다.

결혼 여부는 기혼인 교사가 80.1%이었고 일반인이 60.0%로 기혼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적 배경은 교사의 경우 대학 졸업이 대부분으로 76.5%, 일반인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아 40.7%로 교사가 일반인 보다 교육적 배경이 좀 더 높았다.

직업에 종사한 기간을 알아보면 10년 미만의 교사가 59.5%이고 일반인의 경우 47.7%로 두 군에서 모두 10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일반인의 직업은 회사원이 38.4%로 가장 많았고 주부가 20.7% 그밖에 상업, 학생, 공무원의 순위였

으며 기타 직업이 약간 명석 있었다.

정신신경증 환자와의 친교 및 인척관계 유무는 "관계 있다"에서 교사는 26.2%, 일반인은 21.6% 이었다.

2.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Nunnally²⁾ (1961)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지 (Mental Health Questionnaire)를 우리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응답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 개의 문항만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하여 나이, 성별, 결혼여부, 학력, 직업, 직업연수를 알아 보았다.

3.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1975년 9월 6일 부터 동년 10월 18일 까지 배부 및 수집되었으며 교사의 경우 11개교를 방문하여 임의로 선출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기재 방법을 설명하고 기재토록 하였으며 일반인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3개의 직장파 기타 지역에서 조사 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와 일반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응답수와 백분율에 의한 간단한 통계 방법을 선택하였다.

IV. 조사 성적 및 논의

정신증 환자에 관하여(표 1)

정신증 환자를 생각할 때 "젊은 여자를 생각한다"가 교사의 경우 52.3%, 일반인의 경우 63.7%로 가장 많았고 "나이 많은 남자"가 각각 3.6%, 1.5%로 가장 적었다. 미국의 Nunnally³⁾의 연구 결과는 무식한 사람을 상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젊은 여자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또 남⁴⁾ 오⁵⁾, 오⁶⁾, 주⁷⁾들의 입원한 정신증 환자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모두 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았던 것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연령별로

2) James. C. Nunnally, Popular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Their Development and Change, New York: Halt, Rinehart and Winston, 1961. pp. 42-51.

3) James C. Nunnally, Op. Cit. pp. 285-290.

4) 남명석, 김종호, 정신신경과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요인별 고찰, 신경정신의학, 2 : (1) 40, 5월, 1963.

5) 오석환 외, 정신과 입원의 계절적 변동, 신경정신의학, 3 : (2) 25, 11월, 1964.

6) 오석환 외, 과거 10년간 부산대학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2 : (2) 111, 4월, 1973.

7) 주근 외, 한국농촌(와촌면)에서의 주요 정신질환 빈도조사, 신경정신의학, 12 : (1) 36, 1월, 1973.

표 1. 정신증 환자에 관하여

문항내용	교 사		일 반 인	
	응답수 (N=111)	백분율	응답수 (N=130)	백분율
1) 미친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주로 다음을 생각한다.				
① 나이 많은 사람	4	3.6	2	1.5
② 젊은 여자	58	52.3	83	63.7
③ 무식한 사람	15	13.5	8	6.2
④ 나이 많은 여자	11	9.9	8	6.2
⑤ 지식인	9	8.1	23	17.8
⑥ 젊은 남자	11	9.9	6	4.6
⑦ 무응답	3	2.7		
2) "미친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본 곳은?				
① 텔레비전에서	6	5.4	7	5.4
② 잡지에서	11	9.9	15	11.5
③ 신문에서	17	15.3	17	13.1
④ 책에서	21	18.9	44	33.9
⑤ 영화에서	7	6.4	7	5.4
⑥ 친구에서	46	41.4	38	29.2
⑦ 무응답	3	2.7	2	1.5
3) 만일 정신병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완쾌됐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때 계속 정신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				
① 어린이	48	43.2	53	40.8
② 나이 많은 사람	15	13.5	11	8.5
③ 대학 졸업생	22	19.8	18	13.8
④ 여자	2	1.9	8	6.1
⑤ 무교육자	15	13.5	33	25.4
⑥ 남자	6	5.4	6	4.6
⑦ 무응답	3	2.7	1	0.8
4) 만일 최근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 취직문제로 내게 찾아왔다면?				
① 가능하면 그를 채용하겠다	4	3.6	6	4.6
②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를 대우하겠다	6	5.4	17	13.1
③ 진장이나 좌절시키지 않는 직업이라면 그를 채용하겠다	43	38.7	52	40.0
④ 다른 사람의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 한 채용하겠다	28	25.2	19	14.6
⑤ 채용하나 그의 행동을 자주 관찰한다	21	18.9	23	17.7
⑥ 채용하지 않겠다	9	8.2	13	10.0
⑦ 무응답				
5) 내가 정신병 환자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나는				
① 그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한다	27	24.3	25	19.2
② 그로부터 정상이 아닌 어떤 행위를 예측한다	15	13.5	32	24.6
③ 가능한 한 여러 면에서 그의 기분을 맞춘다	4	3.7	21	16.2
④ 다른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행동한다	54	48.6	37	28.5
⑤ 가능한 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노력한다	8	7.2	12	9.2
⑥ 마치 내가 어린애가 된 것처럼 그와 행동한다	3	2.7	2	1.5
⑦ 무응답			1	0.8
6) 내 친구나 아는 사람중 정신병자가 될 확률은?				
① 50 : 50	3	2.7	5	3.9
② 1 : 4	3	2.7	4	3.0
③ 1 : 20	6	5.4	23	17.7
④ 1 : 100	21	18.9	21	16.2
⑤ 1 : 1000	34	30.7	30	23.1
⑥ 1 : 10000	38	34.2	43	33.1
⑦ 무응답	6	5.4	4	3.0
7) 만일 내가 정신병자가 된다면 나는 아마				
① 내 주변의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	34	30.6	27	20.8
② 내 친구들을 미워할 것이다	2	1.9	3	2.3
③ 항상 조심할 것이다	16	14.4	25	19.2
④ 내가 누구이며 어디 있었는지를 잊게 될 것이다	17	15.3	21	16.2
⑤ 모든 사람이 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12	10.7	11	8.5
⑥ 자제심을 잃을 것이다	28	25.2	43	33.0
⑦ 무응답	2	1.9		
8)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① 퇴원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3	2.7	4	3.0
② 일시적으로 퇴원하더라도 아마 재입원해야 될 것이다	11	9.9	26	20.0
③ 퇴원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정상일 수는 없을 것이다	26	23.4	42	32.3
④ 만일 그를 혼자 내버려두면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4	3.6	5	3.9
⑤ 만일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될 것이다	59	53.2	46	35.4
⑥ 1년정도 치료를 받으면 보통 회복될 것이다	4	3.6	6	4.6
⑦ 무응답	4	3.6	1	0.8

는 이⁸⁾, 남⁹⁾의 조사에서 2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젊은이를 상상하는데 뒷바침이 될수 있겠으며 교육적 배경으로 남¹⁰⁾은 대학졸업이 가장 많았고 교육 정도가 낮을 수록 점점 그 숫자가 적었는데 진¹¹⁾은 오히려 그 반대였고 오¹²⁾도 국민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정신증 환자의 교육적 배경엔 별 유의점을 발견 할수 없었다.

미친사람이란 말을 많이 들어본 곳은 교사의 경우 “친구에서”가 41.4%, “책에서”가 18.9%의 순서였는데 일반인의 경우 “책에서”가 33.9%, “친구에서”가 29.2%의 순서였다.

정신병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완쾌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경우 계속 정신건강이 유지 될수 있을까에 두군에서 모두 “어린이가 43.2%, 40.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어린이들은 사고 과정이 단순하고 생활이 복잡하지 않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 취직문제로 내게 왔다면 “긴장이나 좌절시키지 않는 직업이라면 그를 채용하겠다”가 각각 38.7%, 40.0%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경우 “다른 사람의 안전에 저촉되지 않는한 채용하겠다”가 차위로 25.2%, 일반인의 경우 “채용하나 그의 행동을 자주 관찰한다”가 17.7%로 차위를 차지 하였다. 이 결과는 Nunnally¹³⁾의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를 채용하겠다 보다는 약하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것 만은 사실이다.

내가 정신병자의 집에서 하루를 보낸다면에서 두 그룹 다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행동한다”가 가장 많아 각각 48.6%, 28.5%였고 차위는 교사의 경우 “그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도록 한다”가 24.3%, 일반인의 경우 그로부터 정상이 아닌 어

떤 행위를 예측한다”가 24.6%로 나타났다. 주¹⁴⁾에서도 그가 가진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도록 한다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교사나 대학생은 문제 해결 의식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내 친구나 아는 사람 중 정신병자가 될 확률은 “1 : 10000”이 각각 34.2%, 33.1%로 가장 많았고 “50 : 50”이나 “1 : 4”는 몇 명씩 밖에 되지 않았다. Nunnally¹⁵⁾의 경우 1 : 100으로 이는 한국과 미국의 정신병 환자의 실질적인 비율과 인식의 차이에서 온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로 진¹⁶⁾은 0.33%, 주¹⁷⁾는 0.46%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1 : 10000의 비율은 너무 적은 수치인것 같다.

내가 정신병자가 된다면에 교사의 경우 “내 주변의 일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다”가 30.6%, “자제심을 잃을 것이다”가 25.2%의 순위인데 비해 일반인의 경우는 20.8%, 33.0%로 그 순위가 바뀌어 졌다.

현재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두 군 모두 “장기간 치료를 받는다면 회복될 것이다”가 53.2%, 35.4%로 가장 많으며 “퇴원할 기회는 전혀 없을 것이다”가 2.7%, 3.0%로 각각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나 이것은 미국의 Benty¹⁸⁾의 연구 결과 89%의 교사와 82%의 일반인이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비율에 비하면 극히 낮은 정도이다. 이¹⁹⁾의 정신신경과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결과 치유된 경우가 27.6% 현저하게 좋아진 경우가 43.1%, 변화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28.3%로 70% 정도가 좋아진 것을 알수 있었으며 오²⁰⁾의 연구에서는 41.2%가 치유 및 경쾌 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정신증환자에 대한 교사와 일반인의 태

8) 이철규 외, 최근 8년간의 정신신경과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1960-1967년), 신경정신의학, 8 : (1) 9, 3월, 1969.

9) 남명석, 김종호, Op. Cit. p.40.

10) Ibid p.41.

11) 진성태, 한국의 일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빈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12: (1) 29, 1월, 1973.

12) 오석환 외, Op. Cit. 12: (2) 112, 4월, 1973.

13) James C. Nunnally, Op. Cit. p.288.

14) 주명순, 간호계 학생과 비 간호계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의 비교연구, 중앙의학, 28: (5) 542, 5월, 1975.

15) James C. Nunnally, Op. Cit. p.290.

16) 진성태, Op. Cit. p.27.

17) 주근 외, Op. Cit. pp.36-39.

18) W. Kenneth Benty and Others, Attitudes of Teachers and the Public Toward Mental Illness, Men. Hyg.55: (3) 326, July, 1971.

19) 이철규 외, Op. Cit. p. 18.

20) 오석환 외, 과거 10년간 부산대학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2: (3) 118, 4월, 1973.

도에서 두 군이 거의 비슷한 견해를 가졌으며 전반적으로 정신증 환자에 대하여 취직문제, 대인관계에는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신경증 환자에 관하여 (표 2)

신경쇠약 증세가 있는 사람을 생각 할때 두 그룹 다 “신체적 허약”이 48.6%, 36.9%로 각각 수위를 나타냈으며 교사의 경우 “공포감”이 21.6%, “고독감”이 14.4%의 순위인데 비해 일반인은 “고독감”이

25.4%, “공포감”이 21.5%의 순위를 나타내었다. 주²¹⁾의 연구는 고독감, Nunnally²²⁾는 공포감으로 각각 다른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김²³⁾은 불안, 우울, 공포, 고독의 순으로 보고 하였다.

신경증이 나 신경쇠약이 있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 받으면 회복의 가능성이 많다”가 교사에게서 73.0%, 일반인에서 48.5%로 가장 많으며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기 쉽다”는 사람은 두 그룹 다 거의 없었다. 이와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앞으로 신경증

표 2. 신경증 환자에 대하여

문항내용	교사		일반인	
	응답수 (N=111)	백분율	응답수 (N=130)	백분율
1) 신경 쇠약 증세가 있는 사람을 상상할 때 나는 주로 다음을 생각한다.				
① 아기심	9	8.2	7	5.4
② 신체적 허약	54	48.6	48	36.9
③ 공포감	24	21.6	28	21.5
④ 난잡한 성(性) 관계	3	2.7	1	0.8
⑤ 고독감	16	14.4	33	25.4
⑥ 죄에 대한 댓가	4	3.6	12	9.2
⑦ 무응답	1	0.9	1	0.8
2) 신경증이나 신경쇠약이 있는 사람은				
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 받으면 회복의 가능성이 많다	81	73.0	63	48.5
② 치료하지 않아도 회복의 가능성이 많다	10	9.0	14	10.8
③ 치유되든 악화되든 가능성은 마찬가지이다	4	3.6	23	17.7
④ 완전히 정신병자가 되기 쉽다	0	0.	1	0.8
⑤ 얼마동안 치유되다가 다시 악화되기 쉽다	10	9.0	25	19.2
⑥ 사회적으로 영구적인 폐인이 되기 쉽다	5	4.5	4	3.0
⑦ 무응답	1	0.9		
3) 신경증적인 사람을 상상할 때 나는 주로 다음을 생각한다				
① 나이 많은 남자	4	3.6	63	48.5
② 젊은 여자	41	36.9	14	10.8
③ 무식한 사람	12	10.8	23	17.7
④ 나이 많은 여자	22	19.8	1	0.8
⑤ 지식인	26	23.4	25	19.2
⑥ 젊은 남자	4	3.6	4	3.0
⑦ 무응답	2	1.9		
4) 만일 신경쇠약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다면 나는				
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듯 그에게 빌려주는 것도 고려해 본다	37	33.3	47	36.2
②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9	8.2	18	13.8
③ 다른 사람이 갚아 주겠다는 보증이 있을때 빌려 주겠다	25	22.5	37	28.5
④ 원하는 돈의 일부만을 빌려 주겠다	22	19.8	11	8.5
⑤ 만일 단 시일내에 갚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빌려 주겠다	25	13.5	13	10.0
⑥ 다른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게 더 빌려주기 쉽다	3	2.7	4	3.0
⑦ 무응답				

환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킬수 있을 것이다.

신경증적인 사람을 생각 할때 교사의 경우 “젊은 여자”가 36.9%, 일반인에서 “나이 많은 남자”가 48.5%로 가장 많아 아주 대조적이었으며 Nunnally²⁴⁾는 나이많은 여자가 수위를 나타내어 서로 비교 할 만하다. 그러나 석²⁵⁾의 경우도 2, 30대 보다 4, 50대가 더 많았고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많았다.

신경쇠약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다면에서 두 군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듯 그에게 빌려 주는 것도 고려해 본다”가 33.3%, 36.2%로 각각 수위를 나타내어 두 군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신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두 그룹 모두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비교적 신뢰도가 높았으며 치료면에서 정신증 환자 보다 훨씬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표 3. 정신 건강에 관하여

문항 내용	교 사		일 반 인	
	응답수 (N=111)	백분율	응답수 (N=130)	백분율
1) 만일 내가 결혼 했다면 나의 자식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① 정신병 환자가 있는 집안과의 결혼은 말린다	14	12.7	13	10.0
② 그가 원하는 모든 관심과 애정을 부여한다	24	21.6	22	16.9
③ 늘 정직함을 알려주며 그가 올바른 생활을 하는지 확인한다	36	32.4	51	39.1
④ 그가 신체적으로 건강한지를 확인한다	11	9.9	12	9.2
⑤ 불유쾌한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한다	1	0.9	1	0.8
⑥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25	22.5	28	21.5
⑦ 무응답			3	2.3
2) 만일 내 자신이나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로 조언이 필요할 때는				
① 심리 검사실을 찾는다	16	14.4	15	11.5
② 부모님과 의논한다	4	3.7	10	7.7
③ 가족을 주로 맡아 보시는 의사와 의논한다	24	21.6	20	15.4
④ 정신과 의사에게 간다	41	36.9	51	39.1
⑤ 종교적인 지도나 구원을 찾는다	15	13.5	20	15.4
⑥ 자신이 혼자 처리해 버린다	11	9.9	14	10.9
⑦ 무응답				
3. 정신건강을 생각할 때 나는 주로 다음을 생각한다				
① 자제력	14	12.6	48	36.9
② 신체적인 건강	23	20.7	17	13.1
③ 선천적인 건강	6	5.4	8	6.2
④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사람	7	6.3	9	6.9
⑤ 안정된 소년시절	21	18.9	18	13.8
⑥ 걱정이 없는 상태	38	34.2	29	22.3
⑦ 무응답	2	1.9	1	0.8
4) 만일 내가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다음 어디에서 알아보면 될까?				
① 라디오	2	1.8	3	2.3
② 잡지	7	6.3	11	8.5
③ 책	76	68.5	100	76.9
④ 영화	5	4.5	3	2.3
⑤ 신문	16	14.4	8	6.2
⑥ 텔레비전	4	3.6	5	3.8
⑦ 무응답	1	0.9		

정신건강에 관하여(표 3)

내 지식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보호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늘 정직함을 알려주며 그가 올바른 생활을 하는지 확인한다”가 각각 32.4%, 39.1%로 두 그룹 다 수위였으며 교사의 경우 “그가 원하는 모든 관심과 애정을 부여 한다”가 21.6%, 일반인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가 21.5%로 각각 차위를 차지 하였다.

이것은 Nunnally²⁶⁾의 그가 신체적으로 건강한지를 확인 한다와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내 자신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정신건강 문제로 조언이 필요할 때 두 군다 “정신과 의사에게 간다”가 36.9%, 49.2%로 가장 많았는데 Nunnally²⁷⁾의 경우는 가족을 주로 맡아 보시는 의사와 의논한다가 가장 많았다. 이는 미국은 가정에 정해진 가정의가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것 같다.

정신 건강을 생각할때 교사의 경우는 주로 “걱정이 없는 상태”가 34.2%, “신체적 건강”이 20.7%의 순위였는데 비해 일반인은 “자제력”이 36.9%, “걱정이 없는 상태”가 22.3%의 순위였다.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두

그룹 다 “책에서 알아 본다”가 68.5%, 76.9%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방법은 이용율이 저조했다.

정신질환에 관하여 (표 4)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알콜 중독증과 동일하게 생각한다”가 두 그룹다 45.0%, 36.9%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과 동일하게 생각한다”가 34.3%, 26.9%로 둘 다 차위를 나타내었는데 Nunnally²⁸⁾의 경우는 심장질환, 알콜 중독의 순위로 나타났다. Benty²⁹⁾는 80% 이상이 알콜 중독을 정신병의 범주라고 하였다.

우리집에 사는 친척중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졌다면 “그가 도움이 필요할때 기꺼이 응해 주겠다”가 35.1%, 27.7%로 두 그룹 다 가장 많으며 교사의 경우 “내 친구가 친척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가 27.0%인데 일반인의 경우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 할 것이다”가 26.9%로 각각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일반인과 비 간호계 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의 양면성을 볼수 있었다.

표 4. 정신질환에 관하여

문항 내용	교 사		일 반 인	
	응답수 (N=111)	백분율	응답수 (N=130)	백분율
1)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의 심각성은 다음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진다				
① 교통사고	13	11.7	22	16.9
② 심장질환	38	34.3	35	26.9
③ 소아마비	6	5.4	18	13.9
④ 알콜중독증	50	45.0	48	36.9
⑤ 감기	2	1.8	3	2.3
⑥ 무좀	0	0	3	2.3
⑦ 무응답	2	1.8	1	0.8
2) 만일 우리집에 사는 친척중 한사람이 정신질환을 가졌다면 나는				
① 친구들이 찾아올 때 당황할 것이다	8	7.2	10	7.7
②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응해 주겠다	39	35.1	36	27.7
③ 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23	20.7	35	26.9
④ 내 친구가 나의 친척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30	27.0	33	25.4
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생활로 부터 그를 격리시킨다	7	6.4	11	8.5
⑥ 친구들에게 친척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함께 상의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3	2.7	4	3.0
⑦ 무응답	1	0.9	1	0.8

정신병원에 관하여 (표 5)

정신병원을 생각할때 두 그룹 모두 “절망”이 33.3%, 33.1%로 가장 많았고 “위험” “불결함”의 순위로 강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Nunnally³⁰⁾의 희망과는 아주 대조적 이었다. Benty³¹⁾ 역시 과거에 부정적이던 생각이 차차 변하여 상당히 많은 수가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때 정신병원의 치료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볼수 있겠고 또한 정신병원의 최근의 변화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이해가 그것에 따

르지 못함때 그 원인이 있는것 같다.

정신과 의사에 관하여(표 6)

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고 생각 할때 교사의 경우 “무엇이 든지 머리에 떠 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가 44.1%, “그에 도움으로 내 자신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다”가 40.5%의 순위인데 비해 일반인의 경우는 30.7%, 43.9%로 우선 순위와 차선 순위가 바뀌어 나타났으나 두 그룹 모두 정신과 의사를 신뢰하고 말기는 결과라고 보겠다.

표 5. 정신병원에 관하여

문 항 내 용	교 사		일 반 인	
	응 답 수 (N=111)	백 분 율	응 답 수 (N=130)	백 분 율
1) 정신병원을 상상할 때 나는 주로 다음을 생각한다				
① 불결감	20	18.0	19	14.6
② 희망	15	13.5	13	10.0
③ 절망	37	33.3	43	33.1
④ 평화	9	8.1	12	9.2
⑤ 위험	24	21.6	39	30.0
⑥ 청결함	3	2.7	4	3.1
⑦ 무응답	3	2.7		

표 6. 정신과 의사에 관하여

문 항 내 용	교 사		일 반 인	
	응 답 수 (N=111)	백 분 율	응 답 수 (N=130)	백 분 율
1) 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고 상상할 때 나는 주로 다음을 생각한다				
① 무엇이든지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49	44.1	40	30.7
② 그로 하여금 내 생활을 바로 잡도록 한다	12	10.9	15	11.6
③ 그의 도움으로 내 자신이 직면된 문제를 해결한다	45	40.5	57	43.9
④ 성(Sex)에 대한 나의 노골적인 생각들을 자세히 표현한다	2	1.8	6	4.6
⑤ 나보다 현명한 어떤 사람에게 내 문제들을 일임해 버린다	0	0	6	4.6
⑥ 최면 상태를 생각한다	2	1.8	6	4.6
⑦ 무응답	1	0.9		

21) 주명순, Op. Cit. p. 543.
 22) James C. Nunnally, Op. Cit. p. 287.
 23) 김광일 외, 정신증상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조사, 신경정신의학, 12: (1) 45, 1월, 1970.
 24) James C. Nunnally, Op. Cit. p. 29.
 25) 석재호 외, 일정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 소고, 신경정신의학, 6: (1) 41-50, 3월, 1967.
 26) James C. Nunnally. Op. Cit. p. 287.
 27) Ibid.
 28) James C. Nunnally, Op. Cit. p. 288.
 29) W. Kenneth Bentz, Op. Cit. p. 326.
 30) James C. Nunnally, Op. Cit. p. 290.
 31) W. Kenneth Bentz, Op. Cit. pp. 327-328.

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교육에 힘써 주면 좋겠다.

VI. 결론과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1975년 9월 6일부터 동년 10월 18일 까지 광주 시내에 있는 공·사립 중·고등학교 11개교의 교사 111명과 만 20세 이상의 일반인 13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라는 설문지를 통해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정신증 환자에 대한 교사와 일반인의 태도에서 거의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으며 정신증 환자의 취직문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 2) 신경증 환자에서도 두 그룹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신경증 환자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고 치료면에서 정신증 환자보다 훨씬 긍정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 3) 정신건강에 대하여 두 그룹 모두 자식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늘 정직함을 알려 주며 그가 올바른 생활을 하는지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정신과 의사와 상의한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책을 통하여 정신건강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 4)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두 그룹 모두 알콜 중독증이나 심장질환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며 정신병 환자가 우리 집에 사는 경우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응해 주겠다고 가장 수위였다.
- 5) 정신병원에 대해서 역시 두 그룹 다 절망과 위험, 불결함의 순위로 강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 내었다.
- 6) 정신과 의사에 대해 교사나 일반인 모두 신뢰감을 보이고 있었다.

2. 제 언

- 1) 메스컴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보다 널리 정신건강에 대하여 알릴 기회가 많아야 겠다.
- 2) 대상자의 긍정적및 부정적인 태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도구를 작성하고 다음에 이런 연구가 계속 시도되면 여러 그룹간의 비교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 3) 교사들이 정신건강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은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정신건강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

참 고 문 헌

- 김광일의 : “정신증상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조사” 신경정신의학. Vol. 12, No. 1, pp. 41-52, 1973.
- 남명석, 김종호 : “정신신경과 입원환자에 대한 각종 요인별 고찰” 신경정신의학. Vol. 2, No. 1, pp. 39-42, 1963.
- 박예숙 : “비 정신과 간호원의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Vol. 3, No. 2, pp. 31-43, 1973.
- 석재호 의 : “일정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정신의학적 소고” 신경정신의학. Vol. 6, No. 1, pp. 41-50, 1967.
- 송영선 : “정신과 간호학” 수문사, p. 92, 1974.
- 신영란 : “정신과 병동 간호업무 개선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Vol 5, No. 1, pp. 59-67, 1975.
- 오석환 의 : “정신과 입원의 계절적 변동” 신경정신의학. Vol. 3, No. 2, pp. 25-32, 1964.
- 오석환 의 : “과거 10년간 부산대학병원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Vol. 12, No. 2, pp. 110-118, 1973.
- 이철규 의 : “최근 8년간의 정신신경과 입원 및 외래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1960-1967년)” 신경정신의학. Vol. 8, No. 1, pp. 9-19, 1969.
- 주근 의 : “한국 농촌(와촌면)에서의 주요 정신질환 빈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Vol. 12, No. 1, pp. 35-40, 1973.
- 주명순 : “정신질환에 대한 간호 학생의 태도 연구” 간호학회지. Vol. 4, No. 3, pp. 12-32, 1974.
- 주명순 : “간호계 학생과 비 간호계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의 비교연구” 중앙의학. Vol. 28, No. 5, pp. 539-548, 1975.
- 진성태 : “한국의 일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빈도조사” 신경정신의학. Vol. 12, No. 1, pp. 25-34, 1973.
- Bentz, W. Kenneth and Others : “Attitudes of Teachers and the Public Toward Mental Illness”, Men. Hyg. Vol. 55, No. 3, pp. 324-330, 1971.
- Center, F. M. :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ism, Attitudes toward mental hospital patients, and effectiveness in clinical work in

- mental hospital patients." *J. clin. Psychol.*, Vol. 19, pp. 124-127, 1963.
- Cohen, J., & Struening, E.L.: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Hospital differences in attitudes for eight hospital occupational group," *Psychol. Rep.*, Vol. 17, pp. 25-26, 1965.
- Gelfand, S., & Ullman, L.P.: "Attitude changes associated with psychiatric affiliation." *Nur. Res.*, Vol. 10, pp. 200-04, 1961.
- Manfreda, M. C. : "Psychiatric Nursing, Philadelphia, F. A. Davis Co., 1964.
- Murray, R. : "Attitudes of professional nonpsychiatric nurses toward mental illness." *J. psychiat. Nur.*, Vol. 7, pp. 117-23, 1969.
- Nunnally, James. C.: "Popular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Their Development and Chang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 Russel, C.N., and others: "Comparison opinions about mental illness for hospital attendents and practical nursing students." *Nur. Res.*, Vol. 19, pp. 268-71, 1970.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 of Teachers and General
Public Toward Mental Health**

Sook Ja Yu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Eun Ok Lee, Assistant Professor)

In an attempt to recognize attitudes of teachers and general public toward mental health, 111 teac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 and 130 general public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from September 6, 1975 to October 18, 1975.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ental Health Questionnaire" designed by Nunnally.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selected teacher group and general public group revealed almost similar attitudes toward psychotic patients, that is, positive aspects for employment problems and relationship toward other persons.
2. Both teacher group and general public group revealed the same attitudes toward neurotic patients, felt relatively more reliance on them, and showed muc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neurotic patients than psychotic patients.
3. Both groups indicated that, for the security of mental health, It is best way to show him the right path and make sure that he follows it. As to mental health, most of the selective subjects consulted with psychiatrist about the problems and obtained the information through books.
4. Both teacher group and general public group identified mental illness being equal in seriousness to alcoholism or cardiac disease. In case of a close relative living in their home having mental disease, most of them responded to be glad to help him.
5. Both teacher group and general public group revealed intensively negative attitudes toward mental hospital, in order of despair, danger, and filth, while positive attitudes toward psychiatrist.